

# “李·朴 경선 후 黨 쪼개질 수도”

## 한나라당 중심모임 토론회...네거티브 공방 경계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 치열한 검증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중립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당이 중심되는 모임(중심모임)’이 8일 국회에서 개최한 대선토론회에서 경선 이후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전반적 정치환경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두 후보간 전면전으로 인해 경선후 적정 분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분선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뉴라이트 등장, 집권세력에 대한 대중적 환멸, 젊은층과 수도권에서의 지지 우위 등으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초여

건이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경선은 ‘네거티브 섀 게임(negative sum game)’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경선 이후의 분선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경선에 ‘올인’하면서 지나친 검증공방과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빅2’의 지지를 합계가 떨어지고 있다”며 “경선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보다 범여권에 분선 공작정치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진영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경선후 한나라당이 분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된다는 ‘대세론’, 진보세력이 실패해서 보수층

이 늘고 있다는 ‘보수강화론’, 경선후 하나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른바 ‘빅2’는 오로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서바이벌 게임에 몰입하고 있다. 경선기간에 ‘이별연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당 정보위원장은 “현재 ‘빅2’의 지지도 합계가 약 60%이므로 경선후 후보는 50%대의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뒤 “지지도 10%짜리 (범여권) 후보가 지지를 50%짜리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는 방법은 네거티브 캠페인 밖에 없다”며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와 함께 판과인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연합뉴스

# 세 갈래 지역정가 ‘기세싸움’ 치열

〈민주신당·우리당·민주당〉

## 민주, 오늘 목포서 ‘중도통합 전진대회’

## 민주신당도 대통합 참여 촉구 여론몰이

대통합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이 지난 5일 공식 출범하면서 범여권이 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으로 삼분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정치권도 ‘대통합파’와 ‘민주당 사수파’로 나뉘어 여론몰이와 함께 치열한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3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도당(위원장 이상열) 주최로 ‘중도통합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천 대표와 최인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조순형·이인제·신국환·김영환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신당의 출범과 관련 ‘잡탕식 짝퉁 대통합’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서 ‘중도개혁대통합’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고 당원들의 단결을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최고 위원회의·중도개혁통합추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대선거구 확대’ 구성을 의결, 사실상 민주당만의 대선 독자 경선 의지를 구체화했다. 9일 전진대회를 시발로 당내 대선 주자들의 지역순회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신당에 합류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17명은 조만간 광주에서 ‘중도통합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의원들은 당초 9일 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행사가 같은 날 열리는 점을 감안,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민주당 합류를 위해 이미 탈당을 결정한 상황에서 민주당 및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남아있는 인사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정종득 목포시장 등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단체장 8명은 당시

회견에서 “8월 5일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다시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탈당’과 ‘관망’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유태병 광주 동구청장, 전주인 서구청장, 송광운 북구청장 등이 민주당에 합류했고, 민주당 소속 17명과 열린우리당 1명 등 전남도의원 18명도 탈당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황병순(보성1)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원 24명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정통성과 중도개혁주의에 입각한 대통합이 아니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 사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李·朴 여론조사기관 선정도 난항

경선 여론조사 질문안을 놓고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드리워진 전선이 기관선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여론조사회사 가운데 3개 회사를 선정해 경선 여론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다만 상위 10개사에서 정하지 못하면 회사의 규모나 실비역량, 공신력 등을 고려해 순위 밖에서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박 캠프측이 그동안

이름을 요구한 캠프 관계자는 8일 “박 전 대표 측에서 특정 여론조사기관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군소업체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에 비해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박 전 대표 측은 좀 더 강경한 태도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모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이 후보와 직접 관련돼 있어 조사를 맡길 수 없다”고 차단막을 치는 등 조사기관 선정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이름을 요구한 캠프 관계자는 8일 “박 전 대표 측에서 특정 여론조사기관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군소업체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에 비해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박 전 대표 측은 좀 더 강경한 태도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모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이 후보와 직접 관련돼 있어 조사를 맡길 수 없다”고 차단막을 치는 등 조사기관 선정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 탈레반-한국협상단 대면접촉 ‘오락가락’

한국인 21명을 납치해 억류중인 탈레반 무장세력은 인질석방을 위한 한국정부 대표단과의 첫 대면접촉을 7일 밤(한국시간 8일 새벽) 결정할 것이라고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 마라주인 파탄 주지사가 이날 밝혔다.

그러나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아마디는 이날 아프간이슬라믹프레스(AIP)와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과의 직접 대화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면서 “대면협상 장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후 탈레반에 억류돼있는 한국인 피랍자 가족들이 주한 이란대사를 만나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동빙고 주한 이란대사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탈레반, 여성 인질-여 죄수 맞교환 부인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가 7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협조해 수감된 여성 수감자를 풀어주면 같은 수의 한국인 여성 인질을 석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아마디는 연합뉴스와의 간접통화에서 “지도부에서 협상에 새로

운 결정을 했다”며 “아프간 정부에 수감된 탈레반 여성들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들을 풀어주면 같은 수의 여성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말했다.

아마디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여성 인질의 석방문제는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었다.

아마디의 말은 다수의 여성인질

을 장기억류하고 있는데 대해 이슬람권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쏟아지고 일부 여성 인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적지않은 부담을 느낀 입장변화 조짐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아마디는 이날 저녁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를 통해 이를 부인했다.

AIP는 아마디가 한국인 여성인질과 탈레반 여성 죄수의 맞교환을 제안한 적이 없으며 탈레반 여성 죄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뉴델라·두바이=연합뉴스

## 가즈니주 지사 ‘접촉 성사’ 탈레반 “근거 없다”

## ‘평화 지르가’ 불참 선언 확산 반쪽 행사 우려도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탄 주지사는 대면 협상이 가즈니주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더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탈레반 무장세력과 한국정부 관리들은 지난 수일간 전화를 통해 인질

석방 협상에 관한 대화를 나눠왔다. 그간 탈레반은 유엔이 탈레반 협상대 표단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줄 경우 탈레반 통제구역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프간 정부 관할지역과 제3국에서도 대면협상을 가질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파탄 주지사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에도 탈레반측이 협상 시한을 이틀간 연장하지는 제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탈레반은 그의 발표가 있었던 직후 삼성민씨를 살해한 바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파탄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군사적 행동을 취할 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고, 아프간 군의 군사적 개입 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한국 대표단은 탈레반과의 대면협상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뉴델라·두바이=연합뉴스

**농기구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맨의 필수품입니다.”

스프링클러, 모진농기구, 모진양수기, 비료살포기, 병충해방구기

한아상공 (062) 363-4600

스프링클러, 모진농기구, 모진양수기, 비료살포기, 병충해방구기, 수직농기구, 리모콘농기구, 소형농기구, 소형연삭기, 모진양수기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품격 노동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동행, 동선, 동역, 동업, 동업, 동업, 동업

34-48